

# 익산,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 12일부터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등 종합상황실 운영

익산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2일~15일 총 9개반 60여명을 구성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연휴기간 내내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악취처리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도 특별감찰

활동으로 분야별 대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 없는 행정 수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구성된 불가대책 종합상황실에서는 농·수산물, 축산물, 개인서비스업 상거래 등 분야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귀성객과 귀경객, 성묘객들을 위한

특별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교통종합대책반에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로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나 터미널 등 연휴기간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명절에 판매가 많은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미 점검을 마친 상태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역 저소득층 574세대와 6급 이상 공무원과 1:1 결연 사업을 추진

해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긴급지원이나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전종순 기획행정국장은 "이번 추석맞이 종합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귀성객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명절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행복도시 군산시가 어르신 맞춤형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군산시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어르신 맞춤형복지주택 건립 추진

### 군산시, LH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시행 업무협약

행복도시 군산시가 어르신 맞춤형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군산시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 내년 상반기 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사회 충격을 대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층 부에 복지시설을 설치, 고령자 맞춤형 영구임대 주택과 보건, 의료 등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은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단차 없는 단지계획, 문턱 없는 주거공간,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비상버튼 등을 설치하여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복지시설에는 건강증진실, 동아리실, 취미실, 사교장, 실버카페, 다목적 강당, 담소원, 이미용실, 경로식당 등을 설치해 취미 활동, 치매예방, 위기 독거노인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이 건립되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

### 용동면·춘포면 2개 지구 국비 56억원 포함 총 사업비 80억원 확보

익산시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용동면과 춘포면 2개 지구가 선정되면서 국비 56억원(총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용동면,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해당 지구에 244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이 투입되어 그 지역민의 특화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 참여형 상황식 사업이다.

춘포면은 복지향유센터를 조성하여 이를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의 나눔 활동을 더욱 육성하고 조직화해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과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춘포의 근대화유산인 춘포역, 호소기와 농장과 민경강의 생태자원을 있는 만개로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용동면은 고령친화마을을 목표로 노인의 문화복지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노후된 용동 문화복지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문화활동을 계획하고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번영회 사무실 자리에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영농기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공동체 복원과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공모사업 선정에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과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 군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육성위 구성

자립도시 군산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전문가와 지역 사회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 외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단체, 연계기관, 학계 등을 대표하는 11명으로 구성돼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해 심의하게 된다.

사회적경제는 조직·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 및 시장 경제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최근 열린 청소년 체험교실에 이리여자고등학교 학생 27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의회 견학, 시의원과의 대화,

1분 발언, 의사봉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원과 대화시간에는 강경숙,

오임선, 유재동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학생 귀가안전문제, 익산역 앞 구도심 개발방안, 청소년 정치참여 방법, 환경·일자리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1분 발언을 통해 시의원이 직접 되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미래정치 무대체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의회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민천 기자

## 익산,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익산시는 10일 남부·구시장, 중앙·매일·서동시장, 북부·익산시장 등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시는 그간 온라인 쇼핑몰,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왔다.

정현을 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 군산시, 추석 명절맞이 깨끗한 군산 만들기 나서

군산시는 10일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단체 등 42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주요 관광지와 고군산 도서지역을 포함, 시내 전역에서 추석맞이 대청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결활동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은 물론, 연휴기간 동안 우리시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고군산 도서지역과 산업단지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와 청소 취약지역 등에 적치돼 있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벌였다.

또 서해환경역시 환경미화원 100여명이 시내 곳곳의 공터와 원통단

지의 방치 쓰레기를 처리해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힘을 보탤다.

군산시는 추석맞이 깨끗한 군산 만들기 추진기간인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직원 대청결활동 및 읍면동별 자체 청결활동계획을 수립해 시가지와 도로변, 공한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치된 방치쓰레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연휴기간 내에 발생될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대응을 위해 청소 대행업체인 서해환경과 금호환경의 협업을 통해 명절 당일엔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그 외 연휴기간은 정상근무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가 최근 열린 청소년 체험교실에 이리여자고등학교 학생 27명이 참가했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